

국내 무종교인 인구 비율 ‘63.4%’로 역대 최대

“개신교 내 이단 신자 34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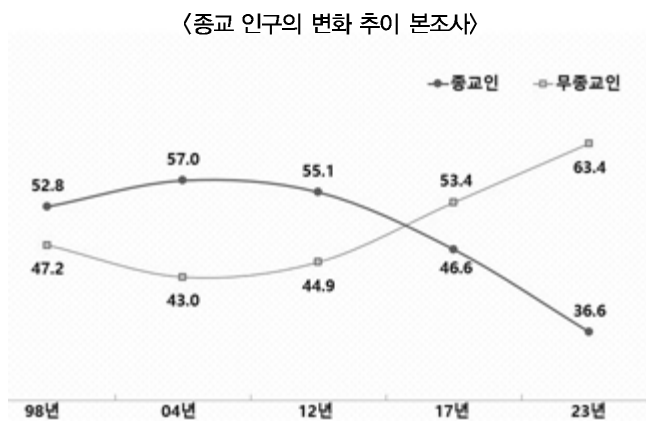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지난 2일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한 ‘제5차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를 발표하고,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5년 만에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목회자 802명, 일반국민 9,182명 등 총 1만2,9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5년간 개신교인은 줄어든 반면 무종교인과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는 늘었다. 종교인 비율은 36.6%로 1998년 이후 실시한 5차례 조사 중 가장 낮게, 종교가 없다는 인구 비율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8년 조사에서 52.8%였던 종교인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 57.0%로 상승했다가 2012년 55.1%, 2017년 46.6%로 하락했으며 작년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종교가 없는 이들의 비율은 47.2%, 43.0%, 44.9%, 53.4%로 변동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종교인은



19.1%, 30대가 24.5%에 그쳐 젊은 층 종교인 비율이 30%를 넘지 않았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단별로는 각각 16.3%, 15.0%, 5.1%였다. 2012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3대 종교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2023년 개신교인 인구를 추정했을 때, 총인구 5134만 명 중 개신교인은

15.0%로 보면 개신교인은 약 771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중 가나안 성도는 2017년 23.3%에서 2023년 29.3%로 6년간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도 있었다. 온오프라인 예배를 이르는 ‘하

이브리드 예배’ 비율은 65.5%인 반면 현장에배만 참석하는 비율은 26.2%에 그쳤다.

또한, 개신교 신자 중 이단 신자 비율이 최소 6%에서 최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8%였다.

과학적 방법으로 개신교 내 이단 신자 비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응답자는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증인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 소속 신도인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개신교내 이단 비율은 최소 약 6%-최대 12%로 추정된다”며 “개신교 교회 출석자를 545만 명으로 간주할 경우, 현재 개신교 내 이단 신자의 수는 최소 약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이 된다”고 추정했다.



말씀의 초대 | 행 11:19-26

‘삶으로 보여라’



이윤영 목사
제주성결교회
제주전도지방회부회장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나는 성도들보다 더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셋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의 손이 함께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21절)

주의 손은 전능하심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마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건넌 것이나 물이 없어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시 139:10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나 지키시는 것이나 복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간증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2.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23절)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어도 온갖 박해와 시험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래도 부당한 목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끊지 말고 떠나지 말며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에는 다스네 신전이 있었고 여기에서 음탕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방탕과 사치가 제2의 소돔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경건함을 자켰고 주님께 붙어 있으며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릭 피터슨(Eric E. Peterson)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을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 둘째, 예수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붙어 경건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속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24절)

수리아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교육할 지도자로 보내바를 파송합니다. 보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으로 교회는 나와도 예수를 안 믿는 삶이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며,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이웃의 인격과 삶과 성격 속에 내가 직접 좋은 사람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 5:16에 “...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역을 맡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종교시민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경철 장모)는 지난달 28일 「0.78명 쇼크,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종교시설 활용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본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인구위기 앞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모든 종교시민단체가 합

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뚝 선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앞에서 주저앉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동산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2년 합산출산율 0.78%라는 성

적표는 참담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생대책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소식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부와 종교 시민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전국에 있는 10만여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부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각정부 부처와 종교계와 적극적인 협력 독려 △정부 관계부처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0~3세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보완 △국회와 여야정당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호소했다.

이밖에 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저출생 국난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종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캠퍼스 내 ‘이단 주의보’ 발령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는 6일 이단 경계 차원에서 캠퍼스 내 주요 이단 동아리와 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학복협이 꼽은 주목해야 할 캠퍼스 이단은 IVF(국제청소녀연합), 신천지에 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등이다.

캠퍼스 이단은 학생들의 들뜬 마음을 틈타 각종 길거리 설문조사와 심리테스트, 상담·세미나,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통해 동아리 가입을 유도한다. 전전한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하거나 QT모임, 성경공부 모임으로 위장해 포교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학과 생활 정보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추천하는 캠퍼스 선교 단체 또는 CAM대학선교회, CCC한국대학선교회, CMF한국가교회, CMI국제대학선교회, DFC제자들선교회, DSM빛진자들선교회, ENM세계로선교회, ESF기독대학연합회, IVF한국기독교학생회, JDM예수제자운동, JOY조이선교회, SFC학생신앙운동, YWAM 예수전도단 등이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양인호 목사
원우리교회

부회장 노희성 목사(주찬양교회)
서기 심용섭 목사(건강한교회)
부서기 이태희 목사(예일교회)
회계 여성현 목사(호산나교회)
부회계 김동식 목사(남원중앙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안영호 목사
설만한물가교회

부회장 허정 목사(신리교회)
부회장 노재익 장로(한사랑교회)
서기 장대영 목사(죽산교회)
부서기 양승용 목사(임천교회)
회계 나경하 장로(규암교회)
부회계 문영섭 장로(반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권상호 목사
꿈이있는교회

부회장 임흥근 목사(주의양교회)
부회장 조영수 장로(산성교회)
서기 박준희 목사(유성제일교회)
부서기 홍석금 목사(새소망교회)
회계 지한철 목사(대전예심교회)
부회계 강왕근 목사(예본교회)

초대합니다

소망의 축복 속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날
저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뜻 깊은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고 힘찬 내디딤이 될 수 있도록
꼭 오셔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용·신점순 의 장남 성산
박효수·김선민 의 장녀 채원

● 일 시: 2023년 4월 1일(토) 낮 12시 40분
● 장 소: 루이비스컨벤션 문정 그레이스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5-2 H 비즈니스파크 D동
Tel. 02-6281-9000
※ 이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